

제28호·2017년 1월 11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회고와 전망

- 2017년 들어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(Advanced Special Economic Zones, ASEZs)에 대해 새로운 소득세 감면법이 시행되고, 기존 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면서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개발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
- 러시아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시행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함께 극동러시아 개발의 양대 대규모 사업으로 지목되어 왔음
- 특히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보다 한발 앞서 시행에 들어간 대규모 지역·산업 개발계획¹⁾으로, 일정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묶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산업 중심지로 투자개발하려는 계획임
- 극동러시아 지역 선도개발구역은 2014년 최초 9개가 지정되었으며, 2016년 3월에 3개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 12개에 이르고 있음
-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감면법에 따르면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구역에 5천만 루블(8억8천만 원) 이상 투자한 기업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 받음
- 러시아는 2015년과 2016년, 2차에 걸친 동방경제포럼(EFF)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극동개발부 갈루시카 장관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(FDI)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, 그 결과 2016년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
- 2016년 12월 기준 극동러시아 전체로는 총 24조원 규모, 465 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²⁾
- 극동개발부에 따르면, 2016년 연말 기준 극동러시아 전체로 20개의 신규 법인이 20개 공장을 완공했으며, 2017년 75개 법인이 설립될 예정임
- 이미 설립된 20개 신규법인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 내에 입주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도개발구역에 위치함

1) 근거 법령은 「러시아연방 사회경제개발 우선순위에 관한 연방법 473-FZ」으로서 2015년 3월 30일 발효됨.
<https://forumvostok.ru/en/mesto/about-asez/>(검색일: 2017. 01. 04)

2) “[전명수기자의 러시아통신]극동개발 465건 프로젝트 ‘약 24조원’ 규모 진행중,” 이코노믹리뷰, 2017. 01. 02 관련 기사 참조. <http://www.econovil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6122>(검색일: 2017. 01. 04).



<극동러시아 12개 선도개발구역 개요>



자료 : 박성준, "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국 북방물류 정책방향," 북방물류 국제 컨퍼런스 자료, 2016. 12. 16.

제빵제과 공장에서부터 대규모 정유공장까지 지역 특화 방침에 따라 개발 박차

- (캄차카 ASEZ) 캄차카주 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스키 소재. 관광과 휴양, 항만, 공업 및 농공업 등을 특화 분야³⁾로 하며, 2016년 중 Gorod 415에 의해 연간 1만 톤 생산 규모의 대규모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됨⁴⁾
- (벨로그로스크 ASEZ) 아무르주 벨로그로스크 소재. 농공업을 특화 분야로 하며, 2016년 하반기 제빵·제과 업체인 Belkhleb이 5백만 루블을 투자해 설립한 아무르스키 식용유공장이 가동에 들어감
- (미하일롭스키 ASEZ) 연해주에 위치. 축산 및 농업을 특화 산업으로 하며, 축산물 가공업

3) 이하 각 선도개발구역의 특화 분야는 러시아극동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및 For Construction of Eurasia Knowledge Forum, June 16, 2015(제5차 한러 극동포럼 발표 자료집)를 바탕으로 작성.

4) 이하 각 선도개발구역의 추진 성과는 러시아 극동개발공사(JSC Far East Development Corporation) 공식 웹사이트의 게시 내용을 근거로 작성. <http://www.erdc.ru/en/tor/yuzhnaya/>(검색일: 2016. 12. 26 및 2017. 01. 04).



- 체 연해주 베이컨이 연간 50만 두 규모의 양돈 단지를 건설함
- 투자액은 약 2백억 루블 규모로 2016년 1단계 시설 공사를 끝내고 가동에 들어감
- (나데즈딘스카야 ASEZ) 연해주에 위치. 경공업, 식품공업 및 물류업을 특화 분야로 하며, 유로플라스트의 연해주 공장이 설립되어 2015년 4/4 분기에 가동에 들어감
- 동 공장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함
- (콤소몰스크 ASEZ) 하바롭스크 변경주에 위치. 항공기 및 부품, 목재 가공을 특화 분야로 하며, 아무르목재가 2억2천만 루블을 투자해 합판 등 목재 가공품을 생산함
- 동 공장은 2016년 1단계 시설을 준공하고, 2017년 2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
- (프리아무르스카야 ASEZ) 아무르주 이바노프구 소재. 공업(시멘트 클링커 등), 및 물류업이 특화 분야로, 시멘트 가공공장 및 정유공장이 건설되거나 건설 중임
- S테크놀로지는 시멘트 클링커 가공공장으로 16억 루블을 투자해 2016년 1월부터 가동함
- 아무르 에너지는 총 투자규모 1천2백30억 루블의 정유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 공장은 2017년 중 1단계 공사를 끝내고 부분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
- 한편 중국은 프리아무르스카야의 정유공장 현대화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
- (하바롭스크 ASEZ) 하바롭스크주 위치(아방가르드 공단 및 라키토노예 일부, 하바롭스크 공항 구역). 교통물류 및 공업(철강, 건축 자재)을 특화 분야로 함
- 테크노니콜-극동에 의해 절연재 및 단열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2015년부터 건설에 들어가 2016년 4/4 분기 중 가동함
- 한편 라키토노예는 국제화물 유치, 화물운송 효율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'라키토노예 물류센터'를 개발하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⁵⁾
- (캉갈라시 ASEZ) 사하공화국 소재. 공업을 특화 분야로 하며, 농공업 분야의 Sayuri가 13억3천5백만 루블을 투자해 온실농장을 건설함
- (베린고프스키 ASEZ) 추코타 자치구 소재. 석탄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가공
- (3개 추가 지정 ASEZ) 러시아 정부는 2016년 3월, 기존의 선도개발구역 외에 추가로 3개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함

5) 라키토노예 물류센터의 구성 등 상세한 정보는 「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」 제22호(2016. 10. 5)의 '물류 이슈'(하바롭스크-2-사마르가향, 극동러시아 신규 물류루트 개발)을 참조할 것.



- 볼쇼이 카멘 ASEZ(연해주)는 조선 분야에 특화된 선도개발구역으로 연간 제철 33만 톤 능력을 갖춘 즈베즈다(Zvezda)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함
- 고르니 보즈두호 ASEZ(사할린 유즈노-사할린스크)는 관광 및 레저 산업을 특화할 예정임
- 유즈나야 ASEZ(사할린 주 나니프스키)는 농업 및 식량생산을 특화하고 있으며, 최근 IP Vetchinova사에 의해 수영장을 갖춘 물놀이 파크가 건설됨

향후 전망과 시사점

-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해 설립된 극동개발공사에 따르면, 2017년 선도개발구역의 입주기업 수와 일자리 수 목표는 각각 268개, 3만4천800명이며, 투자액 목표는 5천5백억 루블(한화 약 10조8천300억 원) 이상임
- 극동개발공사 당국은 2016년 12월말 현재 총 투자액이 이미 5천억 루블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
- 한편 2020년까지 선도개발구역의 입주기업, 일자리 수, 투자액 목표는 각각 484개, 4만8천800 명, 6천4백30억 루블(한화 약 12조6천600억 원)
- 러시아는 현재 지정된 12개의 선도개발구역 외에 추가로 3개의 선도개발구역을 더 지정할 의향을 밝힌 바 있음
- 2016년 6월 러시아 노보스티가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을 인용, 유대인 자치주의 아무르-힌간스카야, 사할린주의 쿠릴, 아무르주의 스보보드넨스카 3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⁶⁾
- 아울러 러중, 러일간에 이뤄지고 있는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관련 협력 현황을 살펴볼 때 향후 2020년까지 극동 러시아 지역의 물류 현황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
- 12개 선도개발구역 개발의 본격화 및 추가 지정은 제조업 및 경공업 제품 화물 창출과 운송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내륙 물류센터 및 컨테이너 터미널 수요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
- 중러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중-몽-러 경제회랑(China-Mongolia-Russia Economic Corridors)의 구축 차원에서, 특히 하얼빈-수이펀허-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수이펀허 회랑(프리모리예1)의 연결성 개선에 나서고 있음
- 러일간에는 2016년 10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(EFF)를 계기로 러-일 철도 연결사업이 논의

6) <http://politrussia.com/news/na-dalnem-vostoke-266> 참조(검색일: 2016. 6. 30)



되기 시작한 가운데, 2016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일과 푸틴-아베 정상회담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 내 석탄 터미널 건설, 사할린 주 샤흐트료스크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등이 논의되고 있음

-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방물류 시장 진출 및 물류산업의 해외 진출 관점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의 주요 교통물류 회랑의 연결성 개선 정도와 수이펀허 회랑(프리모리예1), 투먼 회랑(프리모리예2) 등 주요 회랑 연선의 선도개발구역 개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
- 화물 창출 관점에서의 농수산 가공 분야 민간 차원의 진출과, 연결성 개선 및 무역 촉진 (trade facilitation)을 위한 한-러, 한-중, 한-중-일, '중-몽-러 + 1(한국)' 등 정부간 채널활동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

<2020년까지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개발 목표>



자료 : <http://www.erd.ru/en/index.php#movetopage5> (검색일: 2017. 01. 04)

주: 투자액 및 투자액 목표는 러시아 국내 투자 및 해외자본 투자를 합한 금액임

박성준 전문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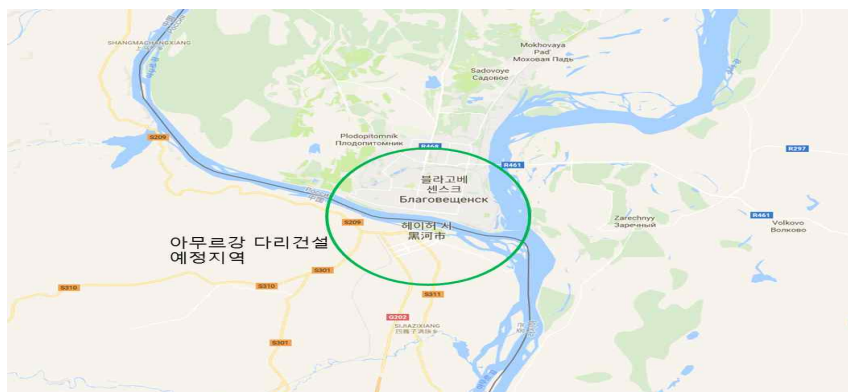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물류동향

러시아-중국을 잇는 아무르강 다리건설 착수

- 러시아의 블라고베센스크와 중국의 헤이허시를 이어줄 아무르강 교량(일명 '아무르교') 건설 공사가 착수됨
 - 건설기간은 약 3년으로 2019년 완공될 예정이며, 자동차 전용 도로 교량임
 - 총연장 20km(진입 도로+교량)에 달하는 동 공사는 길이 1,283m, 폭 14.5m의 교량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, 소요예정 전체 공사 비용은 3억5,600만 달러임
- 이번 아무르강 교량건설은 극동러시아와 헤이룽장성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임
 - 아무르강 교량건설을 통해 도로, 철도, 내륙수운 시스템의 현대화와 지속적인 발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양국이 국정과제로 내놓고 있는 러시아의 '국제교통 회랑'과 중국의 '일대일로'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단계로서의 의미도 지님
- 블라고베센스크와 헤이허시를 잇는 교량 건설은 1995년 러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이후 2015년 9월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2016년 3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러-중 합작회사가 설립되어 동년 연말 착공했음

<아무르강 교량건설 예정지역 위치>



자료: <http://tass.ru>(검색일: 2017년 1월 4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